

##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간 관계: 역기능적태도와 자존감의 매개효과 및 성차\*

신 현 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우울증의 주요 설명 변인인 스트레스, 자존감, 역기능적태도 간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성차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초등 5, 6학년 아동 465명(남 236, 여 229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질문지, 역기능적태도척도, 자존감척도 및 아동우울척도를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및 Mplus를 이용한 경로계수 유의도 분석과 성별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남녀 모두 스트레스,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이 우울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역기능적태도와 스트레스 간 상관, 역기능적태도, 긍정적 자존감 및 우울 간 상관이 더 컸다. 부가적으로 성별 t검증 결과, 여아가 남아에 비해 우울과 부정적 자존감 점수가 더 높았다. 경로계수 분석 결과, 스트레스 사건과 우울 간 관계에서 역기능적태도와 자존감의 부분매개효과 모형이 역기능적태도의 조절 및 자존감의 부분매개효과 모형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이 비슷하게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부정적 자존감 -> 우울, 스트레스 -> 긍정적 자존감 -> 우울의 경로 등이 유의했지만, 성차도 있었다. 즉, 여아의 경우에만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긍정적 자존감 -> 우울의 경로가 유의하였다. 여아가 남아보다 더 우울하고 인지적 특성과 우울 간 관련성이 더 크게 나타나, 그 원인과 차별적인 개입의 필요성, 추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 우울, 스트레스, 역기능적태도, 자존감, 성차

\* 이 논문은 2013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자료분석에 큰 도움을 주신 장승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신현균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Fax : 062-530-2659 / E-mail : shk2004@jnu.ac.kr

아동기의 우울증은 학습 곤란이나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증상들을 동반하여 적응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성인기 우울증의 시초가 된다(신현균, 2009; Horowitz & Garber, 2006). 우울증상은 청소년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지만 우울증의 취약성은 이미 아동기에 형성된다(Jacobs, Reinecke, Collan, & Kane, 2008). 따라서 아동기 우울증의 발생 기제를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기와 성인기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에 근거가 된다. 최근 국내의 아동, 청소년 우울증 관련 변인을 조사하기 위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 86편을 메타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 우울은 자존감,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부모양육태도 순으로 우울과 큰 관련성을 보였다. 자존감과 우울 간 상관은 -.58,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 상관은 .47로 중간 크기 이상의 상관을 보였다(김선미, 고하영, 박수현, 양은주, 2012). 그러나 이 연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5-7개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국내에서 초등학생 우울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진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아동 우울증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지 특성 변인은 포함되지 않아 국내 연구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동에게 있어 스트레스와 우울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외상적 사건 같은 심한 스트레스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사소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것도 우울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즉,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심각한 사고 또는 가족의 질병, 빈곤, 가정 폭력 또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이혼과 같은 심각한 부정적인 생활사건 뿐 아니라 일상적인 스트레스, 즉

친구의 거부나 다툼 등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비롯해 성적 부담감, 부모와의 갈등, 선생님의 비난, 외모 불만, 등도 우울을 유발할 수 있다(Eley & Stevenson, 2000; Grant et al., 2006). 대부분의 한국 아동들은 발달단계상 자연스럽게 겪는 스트레스 외에 과도한 성취와 경쟁에 대한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겪는다(정동화, 2003). 또한 핵가족화에 따라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관심과 기대는 심리적 부담감을 주며 부모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스트레스를 심화시킬 수 있다. 국내 초등학교의 학업 스트레스나 친구 스트레스 등이 우울성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는 일관성 있게 보고되었다(김선미 등, 2012; 심희옥, 1997).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는 성과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해 초등 4학년부터 중 2학년까지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변화 추세를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연령에 따라 스트레스 경험과 우울점수가 더 증가하였고, 남아보다 여아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박미현, 박경자, 김현경, 2012). 또한 초 1부터 중 2까지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유형별 연구 결과, 전 연령에서 부모와 학업 스트레스가 다른 스트레스보다 더 컸으며, 부모, 가정, 친구, 학업, 환경 등 전반적인 일상적 스트레스가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상승하여 중학생에게서 가장 심했다. 우울 수준은 아동초기, 중기 및 후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중학교 시기에 크게 상승하였다(이영옥, 이정숙, 2011). 이처럼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부부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에 우울 예방과 조기 발견

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우울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부정적인 생활사건 자체에 의해 우울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어린 아동들이 스트레스 대처방략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인지 특성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Johnson & McMurrich, 2006). 또한 스트레스 경험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인지 특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어 우울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생활사건이 우울증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기보다 개인의 취약성과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며, 이는 개인적 취약성의 조절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D'Alessandro & Burton, 2006; Grant et al., 2006).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인지 특성에서 개인차를 어느정도 보이지만 공고화되지는 않은 상태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지 특성의 매개 또는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비일관적이다. Grant 등(2006)이 스트레스 사건과 아동, 청소년의 정신병리(심리증상, 심리장애) 간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조절변인과 매개변인을 조사한 약 500편의 논문을 개관한 결과, 인지 특성에 대한 31개의 연구 중 83%에서 부적응적 신념, 비관주의, 귀인양식 등의 조절효과가 지지되었다. 이처럼 아동, 청소년의 경우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우울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형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Abela & Skitch, 2007; Hankin\* & Abela, 2010). 이와 반대로 인지적 취약성은 아동기에 형성되고 청소년기 동안 안정성을 띠게 되므로 중기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까지는 인지적 취약성이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

서 조절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Turner & Cole, 1994). 따라서 11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 사건보다 부정적 설명양식(인지특성)이 더 중요한 예언변인인 반면(D'Alessandro & Burton, 2006), 더 어린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 사건을 겪을 때 이를 내면화하여 인지적 취약성이 형성되고, 인지적 특성이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초등학교생들의 경우 인지변인이 우울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 초등학교 2, 4,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사건은 부정적 자동적 사고, 부정적 인지 삼제, 그리고 우울증적 귀인양식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아동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지편향을 갖게 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었다(Bruce et al., 2006). 국내에서도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인지변인(인지오류, 낮은 자기유능감)과 소극적 대처가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 간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태희, 홍상황, 2004).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인지 특성 중 하나가 역기능적태도다. 역기능적태도는 개인이 자신의 생활지침으로 가지고 있는 과도하게 경직되고 부적절한 규칙들을 의미한다(Beck, Rush, Shaw & Emery, 1979). 역기능적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 절대주의적이고 당위적이며 융통성이 없는 경직된 신념을 지니고 있다. 성취와 유능감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대,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이 이상주의적이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특성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며, 결과적으로 좌절과 실패를

초래하는 역기능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자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실수나 실패에 대해 자기비난하는 경향과 타인으로부터의 비난에 대한 염려가 심해 사건의 의미를 왜곡하고 과장함으로써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우울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Spence & Reinecke, 2003; 김태희, 신현균, 2011에서 재인용). 역기능적태도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보면, 초등 4·5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6개월 간격의 단기 종단연구 결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인지적 취약성(역기능적태도)과 우울을 유발하고, 인지적 취약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시기의 인지적 취약성과 우울 수준은 이후의 우울을 예측하였다(이정아, 정현희, 2012).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역기능적태도가 조절보다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지만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아동 우울의 핵심 변인으로 오래동안 연구되어온 자존감은 아동, 청소년의 우울 성향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경우 우울 성향과 자존감이 -.50 이상의 역상관을 보인다(김정미, 2010a; 심희옥, 1997; MacPhee & Andrews, 2006). 몇몇 연구들에서는 자존감이 우울증을 설명하는데 있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는 조절변인이라는 결과를 보였지만(Abela & Payne, 2004), 전반적으로 조절효과가 미미하여 유의하다 하더라도 설명력이 매우 작았다(Moksnes, Moljord, Espnes, & Byrne, 2010). 국내 초등 6학년,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가 모두 유의하였고, 국내외 중고생의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김

정미, 2010a, 2010b; Tram & Cole, 2000). 개관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자존감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매개변인으로 밝혀졌다(Grant et al., 2006).

성에 따라서도 우울의 기제가 상이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Grant 등(2006)이 아동, 청소년의 우울 관련 변인들에서 성차에 대한 100여 개의 연구를 개관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연구에서 성차가 유의하였다. 즉, 여아가 남아에 비해 스트레스에 반응해 내재화 증상을 더 많이 보였고, 남이는 외현화 증상을 더 많이 보였다. 청소년기에 여아가 남아에 비해 2-3배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데, 이는 지역사회와 임상 표본 모두에서 나타난다(이희연, 하은혜, 2008;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Zahn-Waxler, Shirtcliff, & Marceau, 2008). 부적응적 인지 특성에서도 성차를 고려해야 한다. 국내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완벽주의와 우울 수준이 더 높고 자존감은 더 낮았다(김정미, 2010a). 또한 중고생의 자존감과 완벽주의가 학교 스트레스와 우울 간을 매개하는데, 여학생은 부분 매개, 남학생은 완전매개한다는 결과(김정미, 2010b)가 있으며, 남아의 경우에는 낮은 긍정적 자기개념이, 여아의 경우에는 부정적 인지특성(귀인)이 1년 뒤의 우울을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Mackrell, Johnson, Dozois, & Hayden, 2013)도 있어, 향후 차별화된 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성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아동 우울증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스트레스와 자존감에 더해, 역기능적태도와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성인 우울증의 이해와 치료에서 증거에 기반을 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인지행동적 접근법이 아동에게도 적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아동기 우울증의 인지변인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부정적 자동적 사고, 귀인양식, 등 개별적 변인들의 역할을 규명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아동 우울증의 인지적 특성 중 역기능적태도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우울증을 일으키는 매개변인으로 간주되거나,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증을 유발하는 조절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어 우울증의 인지적 접근에서 핵심적인 변인이고, 외국에서는 다수의 연구가 실시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D'Alessandro & Burton, 2006; Grant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우울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역기능적태도와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성차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다. 청소년 시기에 스트레스와 인지특성의 상호작용이 우울을 유발한다는 일부 선행연구 결과들(Abela & Skitch, 2007; D'Alessandro & Burton, 2006; Grant et al., 2006; Hankin & Abela, 2010)을 고려하여 대안모형으로 조절효과 모형을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학업 부담 등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한국 아동들의 경우 당장 스트레스를 줄이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요 매개변인 및 조절변인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은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자존감과 완벽주의가 학교 스트레스와 우울 간을 매개한다는 연구(김정미, 2010b)는 있지만 초등학생의 우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역기능적태도와 자존감을 포함한 포괄적 모형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자존감을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의 2요인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지

만 이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에 있다. 자존감은 주로 단일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최근 자존감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Rosenberg 척도의 요인 구조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긍정적 자기 이미지와 부정적 자기 이미지의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Hyland, Boduszek, Dhingra, Shevlin, & Egan, 2014; Supple & Plunkett, 2011). 남녀 모두에게서 2요인 구조가 확인되었고 이 요인들은 시간적으로도 안정된 특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2요인이 규명되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4년간의 종단 연구 결과, 이전 시점의 부정적 자존감이 이후 시점의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긍정적 자존감의 우울에 대한 예측력은 크지 않아 우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의 역할이 상이할 수 있다(정은진, 최희철, 2013; 최희철, 2011).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스트레스와 우울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 우울증을 설명하는 인지 모형의 관점에서 주요 변인 간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 우울증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온 스트레스, 자존감, 역기능적태도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자존감의 경우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의 역할이 다르다는 선행 연구를 고려하여 두 요인으로 분리하였고 역기능적태도의 영향을 받는 변인으로 가정하였다. 완벽주의를 포함해 역기능적태도를 가진 경우 자신을 쉽게 비판적으로 평가하게 됨으로써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로를 가정한 근거로 한국 대학생에게서 완벽주의와 심리적 스트레스 간에 자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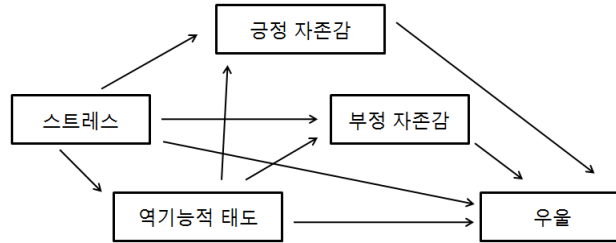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아동 우울증에 대한 부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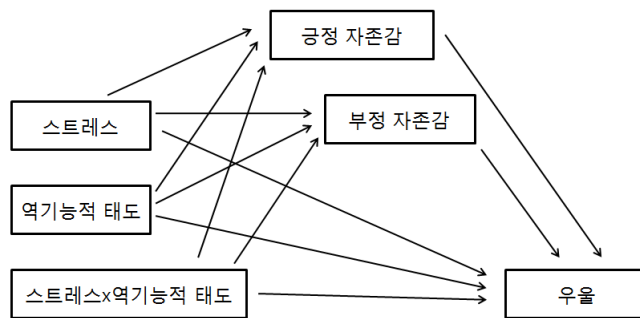


그림 2. 대안모형: 아동 우울증에 대한 조절 및 부분매개모형

감과 부적응적 대처가 매개한다는 연구(Park, Heppner, & Lee, 2010)와 포르투갈 여자 청소년의 경우 완벽주의와 우울 간 관계를 자존감이 부분매개한다는 연구(Bento, Pereira, Marques, Saraiva, & Macedo, 2013)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두 매개변인들을 포함하는 통합적 모형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역기능적태도와 자존감이 영향을 받고, 역기능적태도가 자존감을 낮추어 우울증을 유발하는 경로를 가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연구모형으로 스트레스 사건과 우울 간 관계에서 역기능적태도와 자존감의 부분매개효과를 가정하는 경로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본 모형의 상대적인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설정한 대안모형은 역기능적태도의 조절 및 자존감의 부분매개경로를 가정한 모형이다(그림 2).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스트레스, 역기능적태도,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과 우울 간에는 상호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1-1.** 상관의 정도가 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즉,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 역기능적태도와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 우울 간 상관성이 더 클 것이다.

**가설 2.** 역기능적태도와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은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를 순차적으로 부분매개할 것이다.

**가설 2-1.** 역기능적태도는 스트레스와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 및 우울 간 관계를 부분매개할 것이다.

**가설 2-2.**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은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를 부분매개 할 것이다.

**가설 2-3.** 긍정적 자존감보다 부정적 자존감의 매개효과가 더 클 것이다.

**가설 3.** 매개효과와 정도는 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3-1.** 남아에 비해 여아의 경우 역기능적태도의 매개효과가 더 클 것이다.

**가설 3-2.** 여아에 비해 남아의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긍정적 자존감의 매개효과가 더 클 것이다.

## 방 법

### 연구참여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 47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5명의 자료를 제외한 465명(남 236, 여 229명; 5학년 208명, 6학년 257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은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라 11-12세의 아동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고 정교화된 추론을 하기 시작하며, 아동의 역기능적태도가 우울증의 인지적 취약성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아동기 우울증의 발생 기제를 연구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D'Alessandro & Burton, 2006)).

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담임교사가 학급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담임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실시 시간, 방법 및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여, 담임교사가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합하였다. 설문 조사 전에 연구 참여에 거부하거나 도중

에 중단할 권리가 있고, 설문 자료는 통계 처리되어 개인 정보의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주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본 조사에 참여하였고, 조사가 끝난 직후 1시간 동안 스트레스 감소 및 우울예방 교육을 받았다.

### 도구

#### 역기능적태도척도

아동의 역기능적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D'Alessandro와 Burton(2006)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아동 역기능적태도척도(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DAS-C)의 한국판 척도(신현균, 2011)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 6점 척도이며 개인기준적 완벽주의(요인 1)와 자기비판적 완벽주의(요인 2)의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기준적 완벽주의는 성취와 유능감에 대한 높은 기대,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을 측정하며, 문항 예로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유능해야 한다.'가 있다. 자기비판적 완벽주의는 실수나 실패에 대해 자기비난하는 경향, 타인으로부터의 비난에 대한 염려 등을 측정하며, 문항 예로 '만약 내가 멍청한 말을 한번 한다면, 그것은 내가 바보라는 것을 뜻한다.'가 있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alpha$  계수는 .89이고, 7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4였다. 본 연구 표본에서  $\alpha$  계수는 .93이었다.

#### 자존감척도

Rosenberg(1965)의 전반적 자존감(global self-esteem) 척도의 한국판을 사용하였다(이영호, 1993). 이 척도는 자아 존중의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 긍정적 자존감 5문항과 부정적 자존감 5문항 등 총 1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상에 평정한다. 긍정적 자존감의 문항 예로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부정적 자존감의 문항 예로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가 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alpha$  계수는 .7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 표본에서 긍정적 자존감의  $\alpha$  계수는 .86, 부정적 자존감은 .65였다.

### 스트레스 질문지

스트레스 질문지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사용되는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질문지 중 일부로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다. 부모 및 학업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외모 및 물질 스트레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강유진, 2008). 이 척도는 각 영역별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며, 문항 예는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 약간 받는다, 상당히 받는다, 많이 받는다, 아주 많이 받는다].’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alpha$  계수는 .92였다. 본 연구 표본에서  $\alpha$  계수는 .86이었다.

### 아동우울척도

조수철과 이영식(1990)의 한국판 소아우울척도(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ovacs(1983)가 개발한 척도로 Beck의 우울 척도를 8 - 13세 아동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다.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2주 동안 자신의 기분 상태 및 우울 증상들을 자기 보고 형식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3점 척도로 0 ~ 2점으로 평정된

다. 문항 예는 ‘나는 [가끔 슬프다, 자주 슬프다, 항상 슬프다].’ 조수철과 이영식(1990)의 연구에서 초등 4, 5, 6학년생 288명을 대상으로 구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 반분 신뢰도는 .71, 내적 일관성 신뢰도  $\alpha$  계수는 .88이었다. 본 연구 표본에서  $\alpha$  계수는 .81이었다.

### 분석

변인들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가적으로 성차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별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Mplus를 이용하여 경로계수 유의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상대적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 다중집단 분석으로  $X^2$  차이검증과 경로계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500회)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Muthén & Muthén, 1998-2012).

### 결 과

스트레스, 역기능적태도, 자존감과 우울 점수 간 상관

상관분석 결과, 남아에게서 역기능적태도와 긍정적 자존감 간 상관을 제외하고는 남녀 모두 스트레스, 역기능적태도,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 및 우울 점수들 간 상호상관이 유의하여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상관계수의 성별 차이를 보면, 스트레스와 역기능적태도, 역기능적태도와 긍정적 자존감, 긍정적 자존감



표 1. 성별 스트레스, 역기능적태도, 자존감 및 우울 점수 간 상관

	스트레스	역기능적태도	긍정자존감	부정자존감	우울
스트레스		.61***	-.44***	.55***	.58***
역기능적태도	.32*** <sup>a</sup>		-.38***	.50***	.53***
긍정자존감	-.34***	-.12		-.51***	-.69***
부정자존감	.40***	.38***	-.27***		.62***
우울	.56***	.32***	-.57***	.52***	

\*\*\*  $p < .001$ .

<sup>a</sup> 대각선 아래는 남학생, 위는 여학생의 상관계수

과 부정적 자존감, 역기능적태도와 우울 간 상관의 성차 검증을 위한 Z값이 각각 4.07, -3.00, -3.00, 2.78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존감, 긍정적 자존감과 우울 간 상관의 성차 검증을 위한 Z값이 각각 2.14, -2.14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특히 역기능적 태도와 다른 심리적 특성 및 우울 간 상관성이 더 컸다. 반면, 스트레스와 우울, 스트레스와 긍정적 자존감, 역기능적태도와 부정적 자존감, 부정적 자존감과 우울 간 상관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 역기능적태도와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 우울 간 상관성이 더 클 것이라는 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부가적인 분석으로 스트레스, 역기능적태도, 자존감 및 우울 점수에서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한 결과, 남아보다 여아가 부정적 자존감과 우울 점수가 더 높았다,  $t(463) = -2.22, p < .05, t(463) = -2.30, p < .05$ . 스트레스, 역기능적태도, 및 긍정적 자존감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역기능적태도와 자존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모형인 매개모형 검증을 위해 Mplus를 사용해 각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에서 사용된 예측변인의 수가 달라 모형 적합도 지수들을 직접 비교할 수 없어 각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분석함으로써 비교하였다. 매개모형의 직접, 간접경로계수들은 표 2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직접경로계수의 경우 역기능적태도 → 긍정적 자존감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이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경로들은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500회)에서 역기능적태도 → 긍정적 자존감 → 우울의 경로를 포함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역기능적태도와 부정적 자존감의 매개효과는 확인되었지만, 긍정적 자존감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아 역기능적태도와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이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를 순차적으로 부분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2, 가설 2-1과 2-2는

표 2. 매개모형의 직접, 간접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경로계수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0.98***	0.09	0.49 <sup>b</sup>				
스트레스	->	긍정자존	-0.14***	0.02	-0.36				
스트레스	->	부정자존	0.1***	0.01	0.35				
역기능적태도	->	부정자존	0.04***	0.01	0.28				
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	-0.02	0.01	-0.08				
역기능적태도	->	우울	0.05**	0.01	0.12				
스트레스	->	우울	0.18***	0.03	0.23				
긍정자존	->	우울	-0.81***	0.07	-0.41				
부정자존	->	우울	0.69***	0.12	0.25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우울	0.04(0.02, 0.07)** <sup>a</sup>	0.01	0.06		
스트레스	->	긍정자존	->	우울	0.11(0.08, 0.15)***	0.02	0.14		
스트레스	->	부정자존	->	우울	0.07(0.04, 0.11)***	0.02	0.09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	->	우울	0.01(0, 0.03)	0.01	0.02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부정자존	->	우울	0.03(0.02, 0.04)***	0.01	0.03
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	->	우울	0.01(0, 0.03)	0.01	0.04		
역기능적태도	->	부정자존	->	우울	0.03(0.02, 0.04)***	0.01	0.07		

\*\*  $p < .01$ , \*\*\*  $p < .001$ .

<sup>a</sup> 간접경로계수(신뢰구간 하한값, 신뢰구간 상한값)

<sup>b</sup> 표준화경로계수의 유의도는 비표준화경로계수의 유의도와 동일하여 생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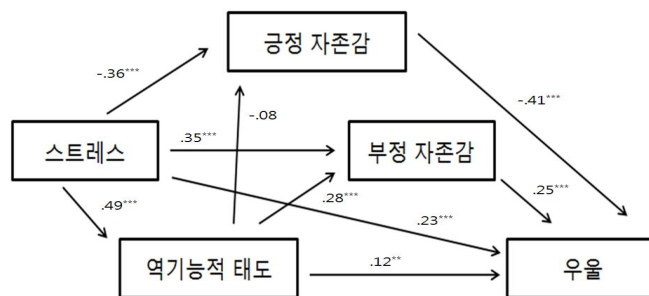


그림 3. 아동 우울증에 대한 부분매개모형의 경로계수(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임)

표 3. 조절 및 매개모형의 직접, 간접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경로계수	
스트레스	->	긍정자존		-0.14***	0.02	-0.36 <sup>b</sup>	
스트레스	->	부정자존		0.1***	0.01	0.35	
역기능적태도	->	부정자존		0.04***	0.01	0.28	
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		-0.02	0.01	-0.08	
역기능적태도	->	우울		0.05**	0.01	0.12	
스트레스	->	우울		0.18***	0.03	0.23	
긍정자존	->	우울		-0.81***	0.07	-0.41	
부정자존	->	우울		0.69***	0.12	0.25	
스트레스*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		0	0.00	0.05	
스트레스*역기능적태도	->	부정자존		0	0.00	0.03	
스트레스*역기능적태도	->	우울		0	0.00	-0.00	
스트레스	->	긍정자존	->	우울	0.11(0.08, 0.15)*** <sup>a</sup>	0.02	0.14
스트레스	->	부정자존	->	우울	0.07(0.04, 0.11)***	0.02	0.09
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	->	우울	0.01(0, 0.03)	0.01	0.04
역기능적태도	->	부정자존	->	우울	0.03(0.02, 0.04)***	0.01	0.07
스트레스*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	->	우울	0(0, 0)	0.02	-0.02
스트레스*역기능적태도	->	부정자존	->	우울	0(0, 0)	0.01	0.01

\*\* $p < .01$ , \*\*\* $p < .001$ .

<sup>a</sup> 간접경로계수(신뢰구간 하한값, 신뢰구간 상한값)

<sup>b</sup> 표준화경로계수의 유의도는 비표준화경로계수의 유의도와 동일하여 생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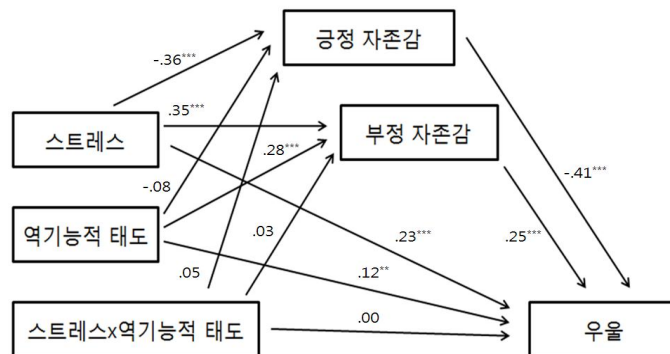


그림 4. 아동 우울증에 대한 조절 및 매개모형의 경로계수(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임)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긍정적 자존감의 경우 역기능적태도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를 직접 매개하였고, 역기능적태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역기능적태도와 우울의 관계에서는 부정적 자존감만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여 긍정적 자존감보다 부정적 자존감의 매개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가설 2-3이 지지되었다.

대안모형인 조절 및 매개모형 검증을 위해 경로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500회)에서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의 매개효과는 확인되었으나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상호작용의 자존감과 우울에 대한 조절효과는 직접, 간접경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절 및 매개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역기능적태도와 자존감의 매개효과에서 성차

본 연구모형인 매개모형이 성별에 따라 다를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두 집단의 비표준화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자유모형)을 비교하는 성별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경로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 중 TLI > .95, CFI > .90으로 양호

했지만 RMSEA가 0.8을 넘어 만족할 만하지 않은 값을 보였다. 또한 90% 신뢰구간에 따른 RMSEA의 상한계값이 .10 이하일 때 양호한 부합도로 볼 수 있지만 본 모형은 .10을 넘어 부합도가 좋지 않았다(문수백, 2009; Hu & Bentler, 1999). 동일성 제약모형과 자유모형( $X^2$ 과 df가 각각 0인 완전적합모형)의  $X^2$  차이 값은 자유모형의  $X^2$  값이 0이므로 동일성 제약모형의  $X^2$  값과 같다. 따라서  $X^2$  차이검증 결과 두 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가 다르도록 허용한 모형이 더 나은 모형으로 보인다.

성별 경로계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각 변인 간 성별 직접, 간접경로계수는 표 5와 그림 5에 제시하였다. 직접경로계수에서 성차를 보면, 여아의 경우 모든 직접경로계수가 유의한 반면, 남아의 경우 역기능적태도의 긍정적 자존감과 우울에 대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500회)을 사용해 구한 간접경로계수를 보면, 여아의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역기능적태도와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 간의 간접경로계수가 모두 유의미해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반면, 남아의 경우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우울의 경로,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긍정적 자존감 → 우울의 경로, 그리고 역기능적태도 → 긍정적 자존감 → 우울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역기능적태도의 매개효과

표 4. 동일성 제약모형의 적합도

$X^2$	df	p	TLI	CFI	RMSEA	LO 90	HI 90
25.053	9	.003	0.955	0.980	0.088	0.048	0.129

TLI = Tucker-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LO 90 = 90% 신뢰구간에 따른 RMSEA의 하한계값; HI 90 = 90% 신뢰구간에 따른 RMSEA의 상한계값

표 5. 성별 매개모형의 직접, 간접경로계수

경로	남			여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0.64***	0.13	0.32 <sup>b</sup>	1.24***	0.11	0.61
스트레스 -> 긍정자존	-0.14***	0.03	-0.33	-0.12***	0.24	-0.34
스트레스 -> 부정자존	0.09***	0.02	0.31	0.11***	0.02	0.40
역기능적태도 -> 부정자존	0.04***	0.01	0.28	0.04***	0.01	0.25
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	-0.00	0.01	-0.01	-0.03 <sup>*</sup>	0.01	-0.17
역기능적태도 -> 우울	0.03	0.02	0.08	0.06**	0.02	0.15
스트레스 -> 우울	0.21***	0.04	0.29	0.14**	0.05	0.17
긍정자존 -> 우울	-0.66***	0.08	-0.39	-0.99***	0.12	-0.44
부정자존 -> 우울	0.67***	0.15	0.27	0.65***	0.19	0.22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우울	0.02(0, 0.04) <sup>a</sup>	0.01	0.03	0.07(0.02, 0.13)**	0.03	0.09
스트레스 -> 긍정자존 -> 우울	0.09(0.05, 0.14)***	0.02	0.13	0.12(0.07, 0.19)***	0.03	0.15
스트레스 -> 부정자존 -> 우울	0.06(0.03, 0.11)**	0.02	0.08	0.07(0.03, 0.14)**	0.03	0.09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 -> 우울	0.00(-0.01, 0.01)	0.01	0.00	0.04(0, 0.07) <sup>*</sup>	0.02	0.05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부정자존 -> 우울	0.02(0.01, 0.04) <sup>*</sup>	0.01	0.02	0.03(0.01, 0.06) <sup>*</sup>	0.01	0.03
역기능적태도 -> 긍정자존 -> 우울	0.00(-0.01, 0.02)	0.01	0.00	0.03(0, 0.06) <sup>*</sup>	0.01	0.08
역기능적태도 -> 부정자존 -> 우울	0.03(0.01, 0.05)**	0.01	0.08	0.02(0.01, 0.04) <sup>*</sup>	0.01	0.06

<sup>\*</sup>p < .05, <sup>\*\*</sup>p < .01, <sup>\*\*\*</sup>p < .001.

<sup>a</sup> 간접경로계수(신뢰구간 하한값, 신뢰구간 상한값)

<sup>b</sup> 표준화경로계수의 유의도는 비표준화경로계수의 유의도와 동일하여 생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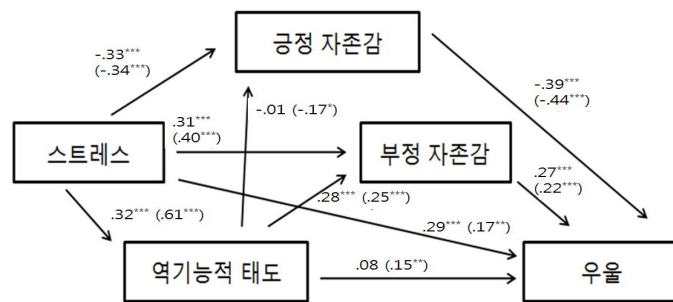


그림 5. 아동 우울증에 대한 부분매개모형의 성별경로계수(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임/ 괄호 밖은 남아, 괄호 안은 여아의 경로계수)

가 부정적 자존감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남아에 비해 여아의 경우 역기능적태도의 매개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가설 3-1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남녀 모두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긍정적 자존감의 매개효과가 비슷하게 유의하게 나타나 남아가 긍정적 자존감의 매개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가설 3-2는 지지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매개효과의 정도가 성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부가적 분석으로 대안모형인 매개 및 조절 모형이 성별에 따라 다를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두 집단의 비표준화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자유모형)을 비교하는 성별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가 다르지 않았다. 즉, 대안모형에서의 성차는 검증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아동 우울증의 주요 설명 변인들 간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과 성차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즉,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역기능적태도와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고, 자존감을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으로 분리하여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역기능적태도와 자존감의 부분매개모형이 역기능적태도의 조절 및 자존감의 매개효과모형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우울, 스트레스 -> 긍정적 자존감 -> 우울, 스트레스 -> 부정적 자존감 -> 우울,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부정적 자존감 -> 우울, 역기능적태도 -> 부정적 자존감 -> 우울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여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역기능적태도와 자존감의 매개효과가 대부분 확인되었다. 그러나 역기능적태도 -> 긍정적 자존감 -> 우울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아 긍정적 자존감의 경우 역기능적태도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를 직접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역기능적태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역기능적태도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특히 부정적 자존감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역기능적태도가 부정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기상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측면을 악화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비해, 긍정적 자존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간접(매개)효과가 유의하기는 했지만 특히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의 우울에 대한 직접효과의 정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자존감 중에서도 긍정적 자존감이 낮은 경우 우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시사되었는데, 이는 부정적 자존감이 우울의 취약성 요인으로 더 중요하다는 결과(정은진, 최희철, 2013; 최희철, 2011)와는 일관되지 않지만 청소년 이전 시기의 아동은 스트레스로 인해 긍정적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역기능적 태도로 인해 부정적 자존감이 커지는 것 못지 않게 우울과 관련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정적 자기상을 개선하는

것 뿐 아니라 긍정적 자기상을 키우는 개입이 우울 예방과 치료에서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을 분리한 연구들이 매우 부족해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대안모형인 조절 및 매개모형의 경우, 스트레스와 역기능적태도 상호작용의 자존감과 우울에 대한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조절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결과는 초등학생에게서 인지변인들의 매개효과 또는 조절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이 비일관적이지만, 초기 청소년기까지는 인지적 취약성이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하기보다는 스트레스 사건을 겪을 때 이를 내면화하여 인지적 취약성이 형성되고, 인지적 취약성이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다(이정아, 정현희, 2012; Turner & Cole, 1994). 아동의 경우, 부정적인 생활사건은 부정적인 인지편향을 갖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자주 겪는 아동은 자신을 책망하는 경향이나 우울증적 귀인양식을 갖게 되고, 자기, 세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견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Bruce et al., 2006). 9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정적 사건이 자기 지각을 변화시키고, 자기 지각은 우울증상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자기 지각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Tram & Cole, 2000).

둘째, 매개효과의 성차에 대한 분석 결과, 경로계수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아의 경우 모든 직접경로계수가 유의한 반면, 남아의 경우 역기능적태도의 긍정적 자존감과 우울에 대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남녀 모두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

이 비슷하게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자존감의 두 요인에 영향 주는 변인들에서는 성차가 있었다. 즉, 간접효과에서 남녀 모두 스트레스 -> 역기능적태도 -> 부정적 자존감 -> 우울의 경로가 유의미하였지만, 여아의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역기능적태도와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 간의 간접경로계수가 모두 유의미한 반면, 남아의 경우 부정적 자존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데 비해 역기능적태도의 매개효과는 부정적 자존감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아의 경우, 역기능적태도가 긍정적 자존감까지 낮추는 데 비해, 남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여아는 남아에 비해 스트레스로 인해 역기능적태도가 유발되는 정도가 더 심할 뿐 아니라, 역기능적태도가 부정적 자존감을 높이면서 긍정적 자존감은 낮추어 우울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남아의 경우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여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남아는 스트레스 정도에 의해, 여아는 역기능적태도의 매개에 의해 우울이 영향 받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심리적 변인들과 우울 간 상관성이 여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 바, 우울을 설명하는데 심리적인 특성이 여아에게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트레스와 역기능적태도 간 상관성이 남아의 경우 .32인데 비해 여아는 .61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여아는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 인지특성을 더 많이 갖게 됨을 시사한다. 11 - 17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특히 여아의 경우 심각한 부당처우 등의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 간 관계에서 자기 비난이 매개하였다(McGee, Wolfe, & Olson, 2001).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인지 양상을 더 많이 보이고 이로 인해 내재화문제를 갖게 되는 경로를 시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여아들은 남아보다 부정적 추론과 반추 등의 인지적 취약성을 더 많이 갖고 있어 부정적 생활 사건 경험의 양에서 성차가 없다 할지라도 우울증에 대한 이러한 인지적 취약성에서의 성차로 인해 부정적 사건을 겪을 때 여아들이 더 우울해지기 쉽다. 즉, 여아들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있을 때 반추를 더 많이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 (Gladstone, Kaslow, Seeley, & Lewinsohn, 1997; McGee et al., 2001에서 재인용). 자신의 지각된 부정적 특징에 대해 부정적 피드백을 찾는 경향이 1년 뒤에 청소년 여아들의 우울 증상을 예언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orelli & Prinstein, 2006; Zahn-Waxler et al., 2008에서 재인용).

이처럼 여아가 남아보다 더 우울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인지적 취약성을 더 쉽게 갖게 되는 등의 성차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한 가지 이유로 여아들은 부정적 사건을 정서적 기억과 연관되어 있는 인지적 망에 더 상세하게 부호화하는데, 이는 성 사회화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부모들은 정서적인 사건에 대해 아들보다는 딸과 더 상세하게 의논한다는 연구가 있다 (Hankin & Abramson, 2001). 또한 발달적 모형 (성 강화 가설)에 의하면 여성역할의 고정관념은 의존적, 관계 지향적, 수동적, 자기희생적인 행동을 촉발시키고, 이는 우울증의 위험도를 높인다. 여아들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이상적인 여성 역할을 더 수용하면서 덜 주장적이고, 의견 억제 및 낮은 자기 가치감을 갖게

된다(Hill & Lynch, 1983; Zahn-Waxler et al., 2008에서 재인용). 이런 관점에 대한 후속모형 들로는 사춘기에 성 사회화와 옥시토신 등의 호르몬 증가로 인해 여아에게서 친밀감 욕구가 강화되고, 부정적인 대인관계 사건을 겪으면 우울증에 더 취약해진다는 주장(Cyranowski et al., 2000)과 여아들이 초기 사춘기 이전에도 우울증의 위험 요인들을 더 갖기 쉽고, 초기 사춘기에 역경에 직면할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다(Nolen-Hoeksema & Girgus, 1994; Zahn-Waxler et al., 2008에서 재인용).

부가적으로 집단 비교를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 역기능적태도, 긍정적 자존감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울과 부정적 자존감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높았다. 이는 청소년 초기에 여아가 남아보다 우울증 비율이 더 높고(이희연, 하은혜, 2008; 하은혜 등, 2003; Zahn-Waxler et al., 2008) 자존감은 더 낮다(김정미, 2010a)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관되는 것으로, 초등학교 5, 6학년에도 성차가 나타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역기능적태도의 정도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경로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역기능적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여아가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은 특히 여아의 경우 치료적 개입에서 인지적 취약성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우울증의 취약성이 형성되는 초등학교 시기에 초점을 두고 아동 우울증의 심리적 기제를 규명하기 위해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조사하고 성차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관된 결과들을 보이지 않았던 역기능적태도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비교, 검토하여 역기능적태도가 우울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정적 자존감에



높임으로써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로를 규명하였다. 특히 역기능적태도가 긍정적 자존감이나 우울에 영향 주는 경로에서의 성차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자존감을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으로 분리해 각각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경우, 긍정적, 부정적 자존감이 비슷하게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아의 경우 역기능적태도와 긍정적 자존감의 연관성이 우울을 설명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이런 결과는 우울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부정적 인지의 교정 뿐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의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개의 심리치료가 여아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듯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스트레스로 인한 취약성을 여아가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성에 따라 차별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김태희, 신현균, 2011; Mackrell et al., 2013).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역기능적태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부 종단연구 결과들은 초등학생에게서도 조절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예로, 2년 종단 연구 결과, 인지적 취약성을 가진 11-14세 아동이 스트레스 사건을 겪을 때 우울증상이 심각해지고, 새로운 우울증이 시작되었다(Hankin\* & Abela, 2010). 또한 11-13세 아동을 대상으로 2년간 종단 연구한 결과, 처음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2년 뒤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인지적 취약성이 더 커졌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인지적 취약성과 부정적 생활사건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여아의 우울 수준이 더 높아진 것으로 설명되었다(Abela &

Hankin, 2008). 이런 연구 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역기능적태도의 조절효과에 대해 향후 중단 연구를 통해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역기능적태도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연령에 따라 자기비판적 완벽주의와 개인기준적 완벽주의 요인의 역할이 다를 수 있어(McWhinnie, Abela, Knauper, & Zhang, 2009) 추후 연구에서는 요인별 연구가 요구된다. 두 요인 간 상관의 3학년의 경우 .38인데 비해 7학년의 경우 .68로 상당히 커졌다는 연구 결과(McWhinnie et al., 2009)를 보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가면서 개인기준적 완벽주의의 부정적 속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즉, 자의식과 자기비판이 증가하는 초기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 기준이 높은 것이 심리 사회적 기능의 손상과 연합될 수 있다(Garber, Wiess, & Shanley, 1993). 자기비판적 완벽주의가 개인기준적 완벽주의보다 우울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연령과 성에 따라 두 요인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요인별 특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 간 관계에서 성차를 규명하였지만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우울증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지각하였다(민하영, 2009). 그러나 여기서도 성차가 나타나는데, 특히 여아의 경우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우울에 큰 영향을 준다(Rudolph & Hammen, 1999; Mackrell et al., 2013에서 재인용). 여아들은 남아보다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이는 여아에게서만 우울증을 예언하는 요인이라는 주장도 있다(Borelli & Prinstein, 2006; Zahn-Waxler et al., 2008에서 재인용). 그

외에도 한국의 여아들은 외모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한다(신현균, 2009).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로 스트레스 유형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유진 (2008).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요인의 스트레스 중재효과: 보호과정 및 취약과정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9(3), 57-84.
- 김선미, 고하영, 박수현, 양은주 (2012). 메타분석을 통한 국내 아동, 청소년의 우울 관련 변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4), 533-555.
- 김정미 (2010a).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7(8), 79-104.
- 김정미 (2010b). 남녀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완벽주의와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성별차이 검증. *상담학연구*, 11(2), 809-829.
- 김태희, 신현균 (2011).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빈곤 가정 아동의 우울 취약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역기능적 태도와 낮은 자존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4), 907-927.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민하영 (2009).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의 유형별 수준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1(3), 109-127.
- 박미현, 박경자, 김현경 (2012).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5년에 걸친 발달적 변화. *아동학회지*, 33(4), 1-17.
- 신현균 (2009). 아동,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 부모양육방식 및 부정적 자동적사고 간 관계: 연령과 성에 따른 부모 양육방식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4), 1083 -1105.
- 신현균 (2011). 한국판 아동 역기능적 태도척도(K-DAS-C)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2), 587-601.
- 심희옥 (1997).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우울 성향: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133-144.
- 이영옥, 이정숙 (2011) 아동·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한 환경, 심리적 문제에 관한 발달단계별 차이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6(1), 53-79.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아, 정현희 (2012).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적 취약성과 우울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단기 종단 연구. *상담학연구*, 13(2), 935-952.
- 이희연, 하은혜 (2008). 청소년기 우울증상의 성차에 대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547-561.
- 정동화 (2003). 아동의 생활사건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을 위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18, 79-102.
- 정은진, 최희철 (2013). 아동의 자기존중감과 우울의 종단적 상호관계. *상담학연구*, 14(2), 1107-1124.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 개발. *신경정신의학*, 29, 943-956.
- 최희철 (2011). 자기존중감과 우울의 상호적 관계: 인지적 취약성 모델, 상처모델, 상호순환적 효과 모델의 검증. *상담학연구*, 12(6), 2251-2271.
-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 공존집단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27-144.
- 한태희, 홍상황 (2004).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의 관계에서 인지변인과 부정적 대처방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 1-21.
- Abela, J. R. Z., & Hankin, B. L. (2008).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during the transition from early to middle adolescence: A cognitive vulnerability-stress perspectiv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07(Supplement 0), S111-S112.
- Abela, J. R. Z., & Payne, A. V. L. (2004). A test of the integration of the hopelessness and self-esteem theories of depression in schoolchildre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5), 519-535.
- Abela, J. R. Z., & Skitch, S. A. (2007). Dysfunctional attitudes, self-esteem, and hassles: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in children of affectively ill par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6), 1127-1140.
- Beck, A. T., Rush, A. J., Shaw, B. F.,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Bento, C., Pereira, A. T., Marques, M., Saraiva, J., & Macedo, A. (2013). Perfectionism, self esteem and depression in a portuguese sample of adolescents. *European Psychiatry*, 28 (Supplement 1), 1-1.
- Bruce, A. E., Cole, D. A., Dallaire, D. H., Jacquez, F. M., Pineda, A. Q., & LaGrange, B. (2006). Relations of parenting and negative life events to cognitive diatheses for depression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3), 321-333.
- D'Alessandro, D. U., & Burton, K. D.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Tests of Beck's cognitive diathesis-stress theory of depression, of its causal mediation component, and of developmental effec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0, 335-353.
- Eley, T. C., & Stevenson, J. (2000). Specific life events and chronic experiences differential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anxiety in young twi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383-394.
- Garber, J., Wiess, B., & Shanley, N. (1993). Cognitions, depressive symptoms and develop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47-57.
- Grant, K. E., Compas, B. E., Thurm, A. E., McMahon, S. D., Gipson, P. Y., Campbell, A. J., et al. (2006). Stressors and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Evidence of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3), 257-283.
- Hankin, B. L., & Abela, J. R. Z. (2010). Cognitive vulnerability-stress interaction predicts prospective increases of depressive symptoms and onsets of new depressive episodes in the transition from early to middle adolescenc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2,

- Supplement*1(0), S13.
- Hankin, B. L., & Abramson, L. Y. (2001). Development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 elaborated cognitive vulnerability-transactional stress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27(6), 773-796.
- Horowitz, J. L., & Garber, J. (2006). The prevention of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3), 401-415.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Hyland, P., Boduszek, D., Dhingra, K., Shevlin, M., & Egan, A. (2014). A bifactor approach to modelling the Rosenberg Self Esteem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6, 188-192.
- Jacobs, R. H., Reinecke, M. A., Gollan, J. K., & Kane, P. (2008). Empirical evidence of cognitive vulnerability for depression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cognitive science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759-782.
- Johnson, S. L., & McMurrich, S. (2006). Life events and juvenile bipolar disorder: Conceptual issues and early finding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 1169-1179.
- Mackrell, S. V. M., Johnson, E. M., Dozois, D. J. A., & Hayden, E. P. (2013). Negative life events and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Informant effects and sex differences in the prediction of depressive symptoms in middle childho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4), 463-468.
- MacPhee, A. R., & Andrews, J. J. W. (2006). Risk Factors for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ce. *Adolescence (San Diego): An International Quarterly Devoted to the Physiological, Psychological, Psychiatric, Sociological, and Educational Aspects of the Second Decade of Human Life*, 41(163), 435-466.
- McGee, R., Wolfe, D., & Olson, J. (2001). Multiple maltreatment, attribution of blam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 827 - 846.
- McWhinnie, C. M., Abela, J. R. Z., Knauper, B., & Zhang, C.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revised children's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 287-308.
- Moksnes, U. K., Moljord, I. E. O., Espnes, G. A., & Byrne, D. G. (2010).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and emotional states in adolescents: The role of gender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5), 430-435.
- Park, H., Heppner, P. P., & Lee, D. (2010). Maladaptive coping and self-esteem as mediators betwee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4), 469-47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pence, S. H., & Reinecke, M. A. (2003). Cognitive approaches to understanding,

- preventing, and treating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In A. T. Beck, M. A. Reinecke, & D. A. Clark (Eds.), *Cognitive therapy across the lifespan: evidence and practice* (pp.358-39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pple, A. J., & Plunkett, S. W. (2011). Dimensionality and validity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for use with Latino adolesc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3*, 39-53.
- Tram, J. M., & Cole, D. A. (2000).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the relation between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ce: Longitudinal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579-590.
- Turner, J. E., & Cole, D. A. (1994).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cognitive diatheses for chil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2*, 15-32.
- Zahn-Waxler, C., Shirtcliff, E. A., & Marceau, K. (2008). Disorders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Gender and psychopathology.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4*, 275 - 303.
- 원고접수일 : 2014. 03. 26.  
수정원고접수일 : 2014. 07. 21.  
게재결정일 : 2014. 08. 14.

##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Elementary-School Children: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Self-Esteem, and Gender Difference**

**Hyun-Kyun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elementary-school childr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self-esteem, and gender difference. A total of 465 elementary-school students(236 male and 229 female) completed a stress questionnaire,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global self-esteem scale, and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The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 correlational analysis, path analysis, and multiple group analysis using Mplus. The results of correlational analysis showed correlation of stress,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with depression in both genders. However, in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dysfunctional attitudes, those between positive, negative self-esteem and depression were higher in girls than in boys. *T*-test showed that girls were more depressed and had higher negative self-esteem than boys. The results from path analysis showed the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self-esteem model was more fitted than the moderating effect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model. The paths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to depression were the strongest. The path of stress → dysfunctional attitudes → negative self-esteem → depression and that of stress → positive self-esteem → depression were significant in both genders, however, gender difference was also observed. That is, the path of stress → dysfunctional attitudes → positive self-esteem → depression was significant only in gir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girls are more depressed and have stronger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than boys. Finally, the causes of these gender differences, need for differential intervention according to gender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ldren's depression, stress, dysfunctional attitudes, self-esteem, gender difference

〈부록 1〉 성별 스트레스, 역기능적태도, 자존감 및 우울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및 *t*값

	집단	평균(표준편차)	<i>t</i>
스트레스	남(N=236)	13.67(8.63)	-1.15
	여(N=229)	14.65(9.86)	
역기능적 태도	남(N=236)	51.20(17.38)	-1.17
	여(N=229)	53.23(19.84)	
긍정자존감	남(N=236)	14.42(3.71)	-1.22
	여(N=229)	14.01(3.55)	
부정자존감	남(N=236)	9.34(2.47)	-2.22*
	여(N=229)	9.88(2.74)	
우울	남(N=236)	12.57(6.21)	-2.30*
	여(N=229)	14.10(8.01)	

\*  $p < .05$ .